

The Me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

학개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 가 그린 그림입니다.

1 장

자기 집 돌보는 데만 급급한 너희

¹ [해설] 바사(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 2 년 6 월 1 일에 선지자 학개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스알디엘의 아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호사닥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²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오.

[하나님] 백성들이 미적미적 꾸물대며 뭐라는 줄 아니?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그닥 좋은 때가 아니야.

³⁻⁴ [해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신 걸 학개가 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너희는 근사한 새 집에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백성들) 지금은… ‘그닥 좋은 때’가 아니야.

⁵⁻⁶ [해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라.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너희가 여기저기 돈은 많이 쓴다만,

딱히 보여 줄 건 없지?

밥을 계속 먹어도

전혀 배부르지가 않지?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전혀 가시질 않지?

옷을 겹겹이 껴 입어도

여전히 따뜻하지 않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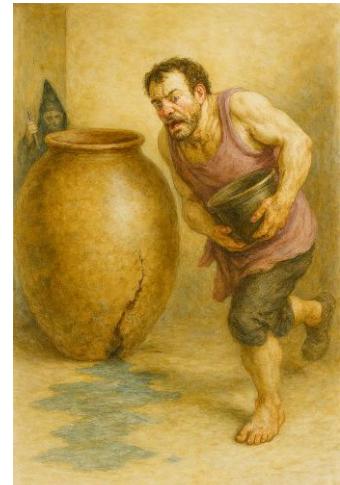
너희 삶이… 밀 빠진 독 같구나.

너희가…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⁷ [스바냐] 그래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오.

[하나님] 너희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라.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 * *

⁸⁻⁹ [스바њ] 그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소.

[하나님]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말해 주마.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오거라.
베어온 목재로 성전을 다시 짓거라.
오직 날 위해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니? 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너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왔지.
하지만 결과가 뭐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
내 성전에 예물이랍시고 가져온 그 꾀죄죄한 것들…,
내가 획~ 다 날려 버렸다. 고작 그딴 걸로 뭘 하겠어?

9-11 너희는 이에 ‘아니, 왜요?’라고 묻고 싶겠지(기억하거라. 이는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내 집이 이렇게 무너져 방치돼 있는데도, 너희는 그저 자기 집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잖니? 그게 이유야. 너희의 인색함! 그래서 내가 여름철 동안 가뭄을 내려, 작물이 자리지 않게 한 거야. 너희의 그런 인색함, 발발 떠는 손 때문에, 내가 가뭄을 내려, 들판이며 언덕이며 다 마르게 한 거라고! 논밭이랑 과수원도 시들게 만들고, 채소밭 과일도 안 자라게 한 거라고! 앞으로도 사람이든, 가축이든, 농작물이든, 뭐 하나 변성치 못 할 게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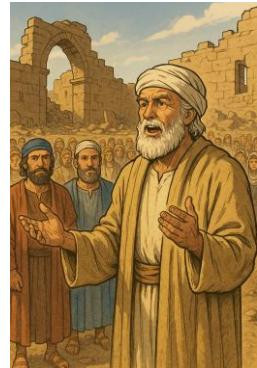
12 [해설] 그러자 총독 스룹바벨(스알디엘의 아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호사밧의 아들)와 온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심으로 경청했지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개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13 하나님의 ‘메신저’ 학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학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단다!

14-15 [해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때는 다리오 왕 제 2 년 6 월 24 일이었죠. (일 착수까지 23 일이 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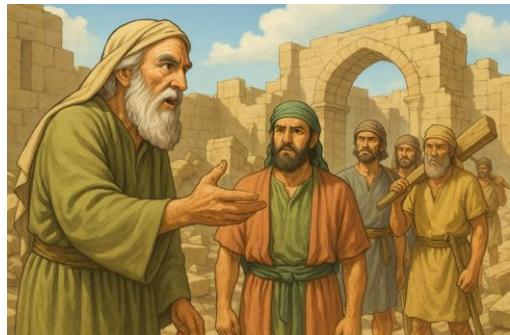
2 장

이 성전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을 거란다.

1-3 [해설] 7 월 21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총독 스룹바벨(스알디엘의 아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호사밧의 아들)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여기 혹시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니? 원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잘 알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초라하기 그지없지?



4-5 [학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그러니 일을 시작하거나,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여호사밧의 아들)야! 일에 착수하거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부지런히 일하거라!

[학개]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그래, 일하자꾸나!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마.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랑 맺은 언약 기억하지? 그걸 실행해 보자꾸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 숨 쉬고 있단다. 그러니 겁낼 것 없어, 주눅들 필요 없다고! (쫄지 마^^)

6-7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조만간 너희 모르게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진동시킬 거란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흔들어 무너뜨릴 거란다. 그들이 보물을 트럭으로 가져올 거란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영광으로 채울 거란다.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8 [하나님]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란다.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9 [하나님] 이 성전은 옛 성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될 거야. 옛 성전도 영광스러웠지만, 이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거야. 왜냐고? 내가 이곳에 온전함과 거룩함을 내려 줄 거거든.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오.

* * *

10-12 [해설] 9 월 24 일(다리오 왕 제 2 년-성전재건 시작 후 3 개월 경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어요.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전하거라.

만일 어떤 사람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따로 구별한, 거룩한 고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중,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그릇, 포도주병이나 기름병, 혹은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이 음식들이 그 거룩한 고기로 인해 거룩해진다든?

[제사장들] 아니요.

13 [해설] 학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그럼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지? 시체를 만진 후, 음식을 만지면 음식 역시 부정해지지?

[제사장들] 네, 당연히 음식도 부정해지죠.

14 [해설] 학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도 부정해진 거야. 나라가 부정해졌으니, 모든 게 부정해진 거란 말이지. 백성이 날 위한답시고 하는 일들? 그것도 다 부정하다고!

15-17 둘이켜 생각해 보거라. 너희가 내 성전의 첫 기초석을 놓기 전에,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 나 하나님의 성전재건 작업을, 마지못해, 질질 끌며, 미적미적, 영혼 없이 하지 않았니? 그래서 농작물도 절반밖에 거두지 못했던 거야. 곡식도 절반, 포도주도 반밖에 안 나왔지?

그거, 내가 가뭄이랑 전염병이랑 우박으로 너희를 쳐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되는 일이 없었던 거라고. 그런데도 너희는 꿈쩍도 않더구나. 계속해서 날 무시했지.

[학개] 하나님의 선포라오.

18-19 [하나님] 하지만, 오늘, 9 월 24 일부터는 달라질 거란다. 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이 날부터는 달라질 거야. (알고 보니 이제야 공사 착수, 무려 3 개월 23 일이 걸립^^) 그동안은 밭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었었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믿어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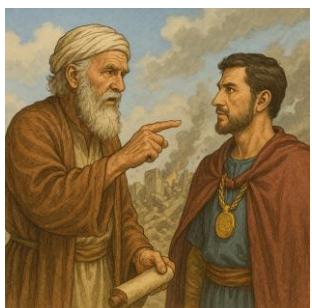


* * *

20-21 [해설] 9 월 24 일,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이 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거라.

21-23 내가 세상을 뒤흔들 거란다. 모든 걸 뒤흔들 거란다. 그래서 완전히 다 새로 시작할 거란다.



정부를 무너뜨리고, 외세를 멸하고, 무기와 무장세력을 해체하고, 그들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지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거란다. 그리고 너, 스룹바벨(스알디엘의 아들)아! 그날이 되면, 내가 널 친히 내 비서실장으로 삼을 거란다. 내가 널 나의 인장반지-나의 주권적 임재와 권세의 표징-로 삼을 거란다. 내가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 널 택한 거란다.

[학개]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